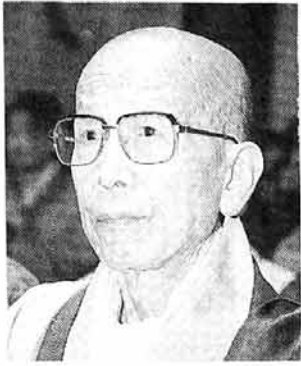


대선의 해... 정치인에게 주는 큰 스님 한 말씀



서웅스님(고려총림 방장)

“황소처럼 정진하여
참사람 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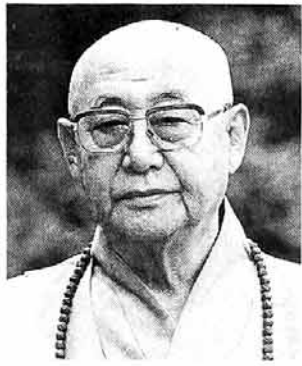
우리는 이성적인 인간에서 욕망적인 인간으로 전락하여 야만으로 복귀하고 있다. 투쟁의 결과는 비극적 종말을 초래한다. 이러한 현대문명의 병근을 치유해서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주의를 초월한 참사람주의이다. 새해는 소의 해이다. 소는 쉬지않고 일하는 덕성을 갖고 있다. 방일하지 않고 황소처럼 정진하여 참사람이 되도록 하자. 우리 모두 참사람운동에 동참해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보자.



원담스님(덕숭총림 방장)

“구름 걷히면 청산
서로 다투지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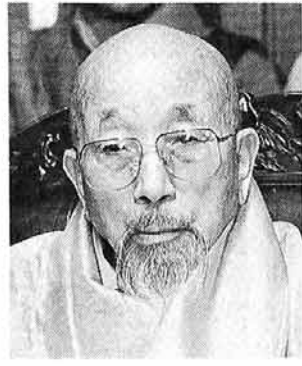
“清淨本然何者是 云何眾生 山河大地 何物?” (청정이 본연하거늘 어찌하여 출연히 산하대지가 나왔는고?) 이는 만공큰스님께서 일본 총독의 간담을 서늘케한 사자후로 산승이 현금의 정치권과 이사회에 던지는 화두이기도 하다. 산승은 다만 침묵할 따름이지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면 “그러저 가지말지어다. 서로의 다툼인 것을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하겠는가. ‘시시비비여! 구름걸리면 이내 청산인 것’을(白雲無礙有青山)”.



덕암스님(대구경총 승정·선암시 조실)

“말은 일에 충실하라
공정하면 탈 없어”

“公正無事 直說默言 중이나라” 말은바 일에 충실하면된다. 자신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된다. 공정하게 하면 다른 문제가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굽은말 정직하지 않은 말은 번거로움이 있지만 직설은 번거로움이 없다. 그러므로 정직한 말을 해야한다. 사회를 이끄는 지도층은 물론 모두가 모름지기 자기일에 충실하고 바른 말을 실천해 불국토 건설에 앞장서기를 당부 한다.



비룡스님(조계종 원로의원)

“탐진치 씻어내고
나보다 남위해 살자”

사회를 이끄는 이들은 모름지기 이기주의 개인주의 독재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는 사리사욕에 빠진 지도층 인사들을 쉽게 만나게 된다. 새해에는 이러한 탐진치를 씻어내는데 앞장서야 하겠다. 또한 자비심으로 나보다 남위해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위에서부터 맑아질때 사회는 화합되고 힘찬 전진을 하게됨을 잊지 말기 바란다.



청하스님(조계종 전계대화상)

“화합·단결하고
마음·행동 깨끗하게”

첫째, 화합해야 한다. 새해는 어느때보다도 화합이 요구된다. 화합하는 국민은 단결이 되고 단결하면 비전이 있다. 둘째, 깨끗해야 한다. 정치 경제 교육 종교등 모든분야에서 깨끗하게 해야 한다. 법은 본래 청정한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마음, 행동을 깨끗이 해야 한다. 셋째, 올바르게 해야 한다.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는 국가관 민족관을 바르게 가져야 한다. 사전을 갖지 말고 바르게 했을 때 자손만대에 이어질 것이다.



벽암스님(조계종 원로의원·선암시조실)

“매일 매일 참회
지혜·덕 갖추자”

지도자는 지혜와 덕을 갖추어야 한다. 지혜는 인과를 살피는 해안이며 덕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배려에서 비롯된다. 인과에 어긋나는 말이나 행위를 하지 않고 또한 마음조차 먹지 않기를 바란다. 세상 일이라는 것이 단두 운행되지 않는다. 좋은 일을 해서 개인적으로 나 이 사회를 위해서나 선업(善業)을 쌓기 바란다. 선업을 저축하면 업장소멸은 절로 된다. 그리고 부단히 매일매일 참회하도록 하자. 더 좋기로는 매 순간순간 참회하기 바란다.

우직·희생·근면 상징

민속에 나타난 소의 의미

불교 '사람의 진면목' 비유

우리의 문화에 나타난 소(牛)는 어떤 모습이며, 그 상징적 의미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우직·희생·성실의 표본으로 요약된다. 물론 소의 중요성은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거듭해 왔으나 우리 민족과 끊임없는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종교, 부, 길조, 의로움, 자애, 여류 등의 의미를 심어 주었다. 소는 농경사회인 우리 민족에게 농사일을 돕는 일하는 짐승으로 부와 재산, 힘을 상징하며, 농경의 바탕으로서의 인식과 함께 부유와 번창이라는 소에 대한 재산의 관념이 나타난다. 고려와 조선 시대에는 매년 농신(農神)에게 종년을 기원하며 제물로 소를 바쳤듯이 희생과 제물의 대상이었다. 또 소뼈나 고삐를 걸어 두고 악귀의 침입을 막는 축귀의 역할도 했다. '소갈이 일한다'라는 말처럼 소는 순박과 우직, 근면의 대명사다. 비록 느리지만 인내력과 성실성이 돋보이는 근면한 동물이기 때문이다. 특히 소는 종교심의 부영에서도 그 상징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불교에서는 사람의 진면목을 소에 비유한다. '십우도(十牛圖)' '십우도(壽牛圖)'는 선을 닦아 마음을 수련하는 순서를 표현하고 있다. 유교에서 소는 의(義)를 상징하며, 도교에서는 유유자적(悠悠自適)을 의미한다. 이처럼 소는 한국문화 속에서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현실적 이용도가 높은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십이지신 부조 탁본 '소'

넉넉하고 근자다운 성품으로 인해 특별한 상징성과 신성한 위치를 확보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때때로 우직하면서도 고집을 부리거나 어리석고 아둔하고 미련한 짐승으로 비유되기도 한다. '황소고집' '소귀에 경읽기' '소 뒷걸음질 치다 쥐 잡는다' 등의 표현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어리석고 우직한 면도 곧 충직한 성격을 반영한 것이다.

정축년 불교 小史

- ▲617년(신라 진평왕 44)=신라 원효대사, 압랑군 불지촌(佛地村) 을곡(栗谷) 사리수(娑羅樹) 아래에서 출생. 이름은 서당(雪童).
- ▲917년(신라 경명왕 1)=8월, 선각형미(先覺道微), 무위감사에서 입적(864. 4. 10 출생).
- ▲1097년(고려 승종 2)=△2월 23일, 국청사가 준공되자 왕이 친히 경찬도량(慶讚道場)을 개설. △9월25일, 회경전에서 백고좌도량을 개설, 승려 1만명을 공양.
- ▲1217년(고려 고종 4)=△1월, 홍왕사 홍원사 경복사 왕릉사 안양사 수리사 등의 승려들이 최충헌을 죽이려다 실패, 수많은 승려들이 죽임당함. △5월 8일, 대장군 지윤심이 양광·충청 도내의 병사와 승군을 이끌고 글안병을 막음. △12월 12일, 왕이 불소 선정전에서 사천왕도량을 개설.
- ▲1277년(고려 충렬왕 3)=△2월 15일, 왕릉사 장육소상(丈六尊像) 조성됨. △5월 4일, 승려 육연(六然)을 강화에 보내어 유리기와를 굽게 함. △7월 23일, 왕이 공을 회사하여 민천사(明天寺)라 명명.
- ▲1337년(고려 충숙왕 복위 6)=봄, 보광사 창건.
- ▲1397년(조선 태조 6)=△1월, 신덕왕후 영역(靈域)의 동쪽에 흥천사 창건을 지시, 9월 준공, 선종의 수할(首刹)로 삼음. 초대주지는 상종(尙聰). △7월, 일본 승려 원해(願海), 처자를 거느리고 귀화. 의술에 정통하므로 환속시켜 전의박사(典醫博士)를 주고 평성(平壤)을 내임. △승려 각주(覺鑄)를 일본에 보내어 인호(隣好)를 닦음. △9월 24일, 진관사 수륙사(水陸社)가 완성되니 왕이 친히 시찰함. △11월, 일본 구주탐제(九州探題) 원도덕(源道德), 사람을 보내어 예물을 바치고 대장경을 요청.

617년 원효대사 불지촌서 탄생

1097년 국청사 백고좌 도량 개설

1937년 선학원서 현행 법복 제정

▲1457년(조선 세조 3)=왕이 불소 영용(永容)대군 담(談) 등을 지휘하여 《능엄경》 《법화경》 등을 교정(校正)하고 훈준 등을 시켜 함허당의 《금강경설의(金剛經說義)》를 교정하여 오가해(五家解)에 넣어 1책으로 하여 각 1백권을 인간(印刊)했다. 또 《법화경》 《능엄경》 《번역명의(翻譯名義)》 각 1백권을 인간하고 《법화경》 1권을 금서(金書)하고 《법화경》 《지장경》 《법명경》 《기신론》 《행원품》 각 1권을 묵서(墨書)함.

조(明照)에게 '가선대부 국일도대'

선사 의승도대장'의 직호와 직함을 제수했으나 받지 않음.

▲1877년(조선 고종 14)=△4월 11일, 환해성여(關海性如) 입적(1804 출생). △9월 28일, 일본 진종대국파(大谷派) 본원사 조선개교사(朝鮮開教使) 오촌원심(吳村圓心), 부산에 건너옴. 11월 8일 법회 개시. △낙파인성(洛波印性) 입적(1794 출생). ▲1937년=△1월 25일, 전남5본산

간섭 철폐 요구. △2월 28일, 총본

산의 사명(寺名)을 태고사로 인가 신청. △3월 1일, 경남3본산총무원

회, 월간 《불교》를 新제1호로 속간. 편집 및 발행인 허영호. 제67호(1944. 12. 1)로 종간. △3월 5일, 제1회 총본산선설위원회 개최 △4월 8일, 금년부터 화제(花祭·부처님오신날)를 일력 4월 8일에 거행 △5월 7일, 중앙불교전문학교학생회, 교지 《법(佛)마니》 창간. 제4집(1940. 3. 10)으로 종간. △6월 16일, 해월(慧月) 신해명 입적(1862. 6. 19 출생). △7월 1일, 환해(關海) 정관진, 월간 《불교》 신제5집에 《조선불교의 사법(嗣法)계통》 발표. 보조-나옹-환암(幻庵)-무학-서산 법통 주장. △8월 3일, 선학원에서 전국선승유교법회(全國禪僧遺教法會) 개최. 이 때 최법술의 제안으로 현행 법복 제정. △8월 15일, 원보산, 방한암 현토 《금강반야바라밀경 오가해》 간행(상원사) △8월 28일, 원보산, 방한암 현토 《보조선사법어》 간행(상원사) △8월, 이종익 등 3인, 일본 경도에서 열린 제2회 세계불교대회에 참가. △9월 1일, 총독부, 해인사 대장경 인출(印出) 시작. △9월 28일, 해동역경원(원장 김구하), 해인사에서 임시도감회(臨時都監會) 개최. △교세현황=사찰 1336개, 스님 6648(5676+972)명, 포교당 846개, 포교사 1045명, 신도 49만8085명.

대원불교대학

학생모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 모집학과 :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통신과정 ○○명
연구과정 ○○명
- 지원자격 : 진실한 불자가 되고자 하는 자
연구과정은 교양대학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 자
- 강의시간 : 출강/통신 - 주 5일 오후 7시~8시 30까지
연구과정 - 주 2일 오후 2시~4시까지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7년 2월 28일까지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0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교과목 : 주 5일 수업

1학년	1학기	불교학개론	선종사상사	한국불교사	인도불교사	불전개설
	2학기	불교입문	화엄사상	밀교사상	법화사상	정토사상
2학년	1학기	의식이론	반야사상	포교방법론	불교미술	유식철학
	2학기	의식실기	불교학특강	불교복지론	불교상담학	원전강독

◇과목은 사정에 따라 약간씩 변경될 수 있음

- 특 전 : 졸업후 ㄱ. 포교당 개설시 지원 상담
ㄴ.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ㄷ. 포교당 개설시 법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주소 : 140-190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776-7156, 773-9171, 754-1613/ 팩스 : 756-7258